

건강·의료

겨울철 불청객 '피부 건조증'

탄력·미백 한번에 '겔럭시 치료' 인기

쌀쌀한 바람 날세, 반대로 따뜻한 실내 공기. 들쭉날쭉한 온도차에 피부 속 수분은 마르고, 쉽게 붙어진다. 입술도 트고, 심할 경우 온몸이 가렵고 당긴다.

이 때문에 겨울은 여성에게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최근엔 고주파와 레이저, IPL(Intense Pulsed Light) 에너지 장점을 모아 동시에 치료하는 '겔럭시 치료'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5분~30분 치료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며, 주름·모공·여드름·흉터 등을 한꺼번에 없애주기 때문. 시술 뒤에는 곧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 올 겨울 건강할 겨울나기.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자. 다음은 피부 유형별 관리법.

◇지성 피부=기름기 제거를 위해 지나치게 씻거나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 메이크업을 지우고 얼굴을 씻은 뒤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오일프리 타입의 기초제품으로 피부를 정돈하는 게 좋다.

◇건성 피부='보습'보다는 제대로 된 '클렌징'에 더 신경 쓰자. 오일 타입 스킨을 피하거나 미네랄워터로 된 스프레이를 뿌리면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다.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알칼리 성분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오일이나 크림 타입 클렌저

를 써야 한다. 잔주름 예방을 위해 특히 눈과 입 주변은 전용 제품을 쓰는 게 좋다.

피부가 심하게 당길 때는 녹황색 채소나 간·달걀노른자와 같은 비타민A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각질 제거에는 '레드와인'나 '매머의 요거트' 팩이 좋다. 적포도주에 포함된 AHA 성분은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결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유제품에는 젖산이 풍부해 보습에 효과적이다.

지성 피부도 잦은 사우나 안좋아 건성피부, 보습보단 클린징 중요

◇복합성 피부=T존(이마·코·턱)에는 피지가 많고, U존(볼과 입술 주위)에는 수분이 부족해 각질이 많고 화장이 잘 안 받는다. T존은 딥클린징, U존은 민감성 클렌저를 써 따로 관리해야 한다. 볼은 건성 피부 관리법에 따르는 게 좋다. 잠을 적게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 부위별 불균형 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 생활 습관에도 주의해야 한다.

◇민감성 피부=작은 바람에도 얼굴이 쉽게 빨개지며, 화장품을 발라도 가끔 따끔거린다. 비누나 물을 바퀴 써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화장품은 가시수가 적은 것을 선택하고, 팩도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바나나, 율무, 꿀 팩이 효과적이다. 과도하게 각질을 없애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도움말=조선대병원 피부과 박만규 교수



박만규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가 '겔럭시 치료'로 피부 건조증 환자를 시술하고 있다. /최현미기자 choi@kwangju.co.kr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전남대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이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창영 광주보훈병원장, 김희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강정재 전남대 총장, 김상형 전남대병원장.

전남대병원·광주보훈병원 의료협약 체결

전남대병원(병원장 김상형)과 광주보훈병원(병원장 정창영)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대 강정재 총장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희경 이사장은 지난 18일 전남대병원 6층 2층 회의실에서 '의료협력 기본협약 조인식'을 갖고 국가 유공자 및 지역 주민들에 대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두 병원은 협약식에서 ▲의료진 파견 가능 ▲국가 유공자 및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진료사업 ▲하술적 자원 및 의학적 지식과 기술지원 ▲의료요원의 수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병원을 이를 위해 병원장이 공동위원장이 '전남대병원·광주보훈병원 협진위원회'를 구성, 주요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3차원 영상으로 안면 비대칭 진단"

전남대병원 황현식교수팀 개발

전남대병원 치과진료처 황현식(47·사진) 교수팀이 개발한 3차원 안면 영상 진단법이 고정분해도 0.1mm 이하 고정해상도(AJODO) 최신평에 소개됐다.

황 교수와 이기현(교정과)·강병철(치과 방사선과) 교수로 꾸려진 연구팀은 컴퓨터 단층촬영(CT)의 데이터를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 한 뒤 3차원 계측을 통한 분석 방법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안면 진단에는 2차원 방사선 사진이 주로 사용돼 정밀 분석에 한계가 있었지만, 황 교수 팀의 3차원 안면 영상 진단법



은 안면 비대칭을 비롯한 정밀 진단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는 3차원 영상 진단법을 연구하면서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초청 강연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독일의 한 학술신문에 3차원 안면 비대칭 분석방법이 전면에 걸쳐 특집으로 소개되는 등 명성을 쌓고 있다. 황 교수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산학 협동연구에도 힘을 쏟아 3차원 분야 연구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

전남대병원 주사제·항생제 적게 쓴다

전국 평균 크게 밑돌아

전남대병원과 화산전남대병원의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전국 233천495개 의료기관 의뢰 주사제 처방률 조사한 결과 전남대병원 주사제 처방률은 2.15%로, 연세대 영등포병원(1.9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전국 43개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처방률(3.35%)보다

낮은 수치다. 또 감기 등 항생제 처방률 조사에서도 전남대병원은 처방률 33.43%로, 종합 전문병원(평균 처방률 45.2%) 가운데 5 번째로 처방률이 낮았다. 지난해 공개한 2005년도 3분기 조사 때 전국 7번째에서 두 단계 더 낮아졌다. 화산 전남대병원의 주사제 처방률도 전남대병원 주사제 처방률은 2.15%로, 연세대 영등포병원(1.9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전국 43개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처방률(3.35%)보다

임신 원하면 '트랜스지방' 멀리해라

美 하버드대...매일 4g만 먹어도 불임위험 최고 2배

임신을 원하는 여성은 트랜스 지방을 멀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호르헤 차바로 박사는 영양학전문지 '임상 영양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임신을 원하는 건강한 여성 1만8천555명을 대상으로 9년 동안 조사 분석한 결과 탄수화물 대신 트랜스 지방에 얻는 칼로리가 2% 늘면 불임 위험이 8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바로 박사는 오메가-6 다불포화 지방산에서 섭취하는 칼로리 중 2%를 트랜스 지방으로 바꿨을 때는 불임위험이 79% 상승했고, 오메가-3 다불포화 지방

산에서 섭취하는 칼로리 중 2%를 트랜스 지방으로 대체했을 때는 임신을 못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랜스 지방은 감자칩 같은 튀긴 음식·비스킷 등에 주로 많이 들어있으며, 심장질환과 당뇨병 위험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LCE타워(주)
첨단지구 LCE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매
\*총면적 78평 5층 건물 2억1,700만 원

민음공인중개사
첨단지구,쌍암동,월계동 상인지역 토지
\*토지: 608평(오메가 병원, 음식점, 음식점, 기타 등등) 4억 4,000만 원

동부부동산(주)
1. 황산구 도현동(메이카) 122-1의 2필지
\*토지: 5,252평 수원지구-원산지 30m도로

토우드공인중개사
토지
\*신안동 800평 당 도로폭 90m

정우부동산
건물매매
\*외곽도로변 한일병원부근 대지 120평

(주)홈컨부동산
정말하고 과학적인 검증
(주)홈컨부동산 리서치중개
사무지구 시장왕 한국은행후면